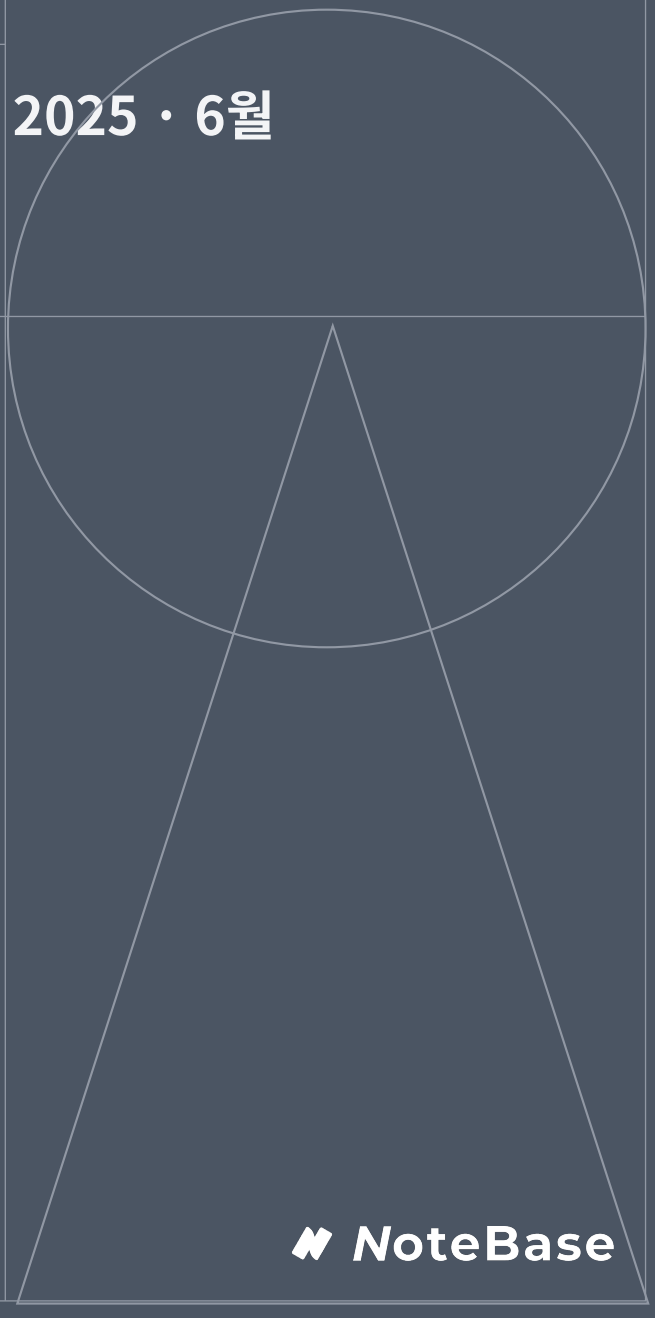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서울시/9급 · 국어 · 2025 · 6월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서울시/9급 · 국어 · 2025 · 6월

공무원/서울시/9급 · 국어 · 2025 · 6월

문 1. 단어 형성의 유형이 다른 것은?

① 군밤
② 군소리
③ 군침
④ 군식구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군밤'의 '군'은 **'굽다'의 활용형에서 온 말**이므로 '군밤'은 합성어이다. 나머지 단어의 '군-'은 어근 앞에 붙어 뜻을 더하는 접두사이므로 이들은 파생어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어근은 단어의 중심 의미를 나타내는 부분이고, 접사는 어근에 붙어 뜻을 더하거나 새 단어를 만드는 부분이다. 어근끼리 결합하면 합성어이고, 어근에 접사가 결합하면 파생어이다.

① 군밤: **합성어**이다. '굽다'의 활용형 '구운'이 '군'으로 변형되어 굳어진 형태와 어근 '밤'이 결합한 말이다. '불에 구워 익힌 밤'이라는 뜻으로, 이때의 '군'에는 '굽다'의 실질적인 의미가 남아 있다.

② 군소리: **접두사 '군-' + 어근 '소리'**로 이루어진 파생어이다. '군-'은 '쓸데없는'의 뜻을 더하여 하지 않아도 좋을 쓸데없는 말을 나타낸다.

③ 군침: **접두사 '군-' + 어근 '침'**으로 이루어진 파생어이다. 이때의 '군-'은 '쓸데없는'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이며, '굽다'의 활용형이 아니다.

④ 군식구: **접두사 '군-' + 어근 '식구'**로 이루어진 파생어이다. '군-'은 '가외로 더한'의 뜻을 더하여 본래의 식구 외에 덧붙은 식구를 나타낸다.

단어 형성 방식을 비교하면 '군밤'만 어근끼리 결합한 합성어이고, '군소리·군침·군식구'는 접두사가 결합한 파생어이다.

NoteBase

문 2. 문장 성분의 호응이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

① 오랜만에 식구들이 모여 야식으로 치킨과 맥주를 마셨다.

② 건강 관리를 위해 주중에는 헬스를, 주말에는 등산을 한다.

③ 내 꿈은 훌륭한 기업을 만들어 모두에게 행복을 주려고 한다.

④ 어버이날에 부모님이 가장 원하는 선물은 카네이션을 받는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헬스를 한다'와 '등산을 한다'는 모두 목적어와 서술어가 자연스럽게 호응한다. 앞부분에서 공통 서술어인 **'한다'를 생략**해도 문장의 의미가 분명하다.

선지별 해설

① X: '치킨과 맥주를'이 함께 '마셨다'의 목적어로 쓰였으나, 치킨은 마시는 대상이 아니라 먹는 대상이다. 두 대상에 맞는 서술어를 각각 써서 '오랜만에 식구들이 모여 야식으로 **치킨을 먹고 맥주를 마셨다**.'로 고친다.

② O: '헬스를 한다'와 '등산을 한다'는 각각 목적어와 서술어가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주중에는 헬스를' 뒤에 생략된 서술어 '한다'를 복원하면 '주중에는 헬스를 한다, 주말에는 등산을 한다'가 된다. 따라서 두 부분에 **서술어 '한다'를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③ X: '내 꿈은'은 꿈의 내용을 설명하는 말과 호응해야 한다. 그런데 '주려고 한다'는 어떤 행동을 하려는 의도를 나타내므로 '내 꿈은'과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않는다. '내 꿈은 훌륭한 기업을 만들어 모두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다**.'로 고친다.

④ X: '부모님이 가장 원하는 선물은'은 선물이 무엇인지 밝히는 말과 호응해야 한다. '카네이션을 받는다'는 선물의 정체가 아니라 받는 행동을 서술하므로 호응이 어색하다. '어버이날에 부모님이 가장 원하는 선물은 **카네이션이다**.'로 고친다.

NoteBase

문 3. ‘끝, 마지막’의 의미를 가지지 않는 단어는?

① 겨우내
② 끝내
③ 그예
④ 급기야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겨우내'는 **겨울 동안 내내**라는 뜻으로, 어떤 일이 이어지는 기간을 나타낸다. 일의 끝이나 마지막에 이른다는 의미는 없다.

선지별 해설

① X: '겨우내'는 **겨울 동안 내내**라는 뜻이다. '겨우내 눈이 쌓여 있었다'는 겨울 동안 계속 눈이 쌓여 있었다는 말이며, 마지막에 어떤 결과에 이르렀다는 뜻이 아니다.

② O: '끝내'는 '끝까지 내내' 또는 '끝에 가서 드디어'라는 뜻이다. 지속되는 경우에도 그 범위를 **끝까지**로 한정하므로 '끝, 마지막'의 의미를 가진다.

③ O: '그예'는 **마지막에 가서는 기어이**라는 뜻이다. '그예 성공했다'는 결국 성공에 이르렀다는 말로, 마지막에 나타난 결과를 드러낸다.

④ O: '급기야'는 **마지막에 가서는**이라는 뜻이다. 앞서 이어진 일이 결국 어떤 결과에 이르렀음을 나타내므로 '끝, 마지막'의 의미를 가진다.

NoteBase

문 4. <보기>의 ㉠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와 의미가 가장 가까운 속담은?

<보기>
소비를 함으로써 우리가 즐거움과 행복감을 느끼는 것은 소비의 중요한 순기능이다. 상품이나 서비스를 소비할 때 단순히 '기능적인 필요'만으로 구매를 결정하지는 않는다. 기분 전환을 위해, 즐거움을 느끼기 위해 쇼핑을 하거나, 아니면 쇼핑하는 그 자체로 재미와 만족감을 느끼기도 한다. ㉠하지만 남들이 다 한다고 나의 경제력에 맞지 않는 무리한 규모의 소비를 하면서 '플렉스'라는 감정적인 가치로 자신을 속이는 것은 결코 균형 잡힌 소비라고 볼 수 없다. 유행하는 스타일과 소비 형태가 중요한 참고 기준이 되는 현대에 다른 사람들의 소비를 의식하지 않기가 쉽지는 않다. 하지만 굳이 비싼 상품이 아니더라도 나에게 필요한 상품을 가격만큼의 효용 가치를 꼼꼼히 따져 구입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현명한 소비 습관은 주체적인 삶의 소중한 밑거름이기 때문이다.

①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운다.
② 겨 묻은 개가 똥 묻은 개를 나무란다.
③ 뱁새가 황새를 따라가면 다리가 찢어진다.
④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은 **남을 따라 자신의 경제력을 넘어서는 소비**를 하는 태도를 경계한다. '뱁새가 황새를 따라가면 다리가 찢어진다'도 자기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남을 무리하게 따라 하면 해를 입는다는 뜻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은 소비에서 즐거움을 얻는 것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다. '남들이 다 한다고', '나의 경제력에 맞지 않는 무리한 규모의 소비'라는 표현을 통해 남을 따라 감당할 수 없는 소비를 하는 태도를 비판한다. 아래 O/X는 각 속담의 뜻이 이러한 취지에 부합하는지를 나타낸다.

① X: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운다'는 작은 문제를 해결하려다가 훨씬 큰 손해를 입는다는 뜻이다. 핵심은 **작은 문제에 대한 지나친 대응**이다. ㉠은 문제 해결 방법의 과도함이 아니라 남을 따라 자기 경제력에 맞지 않게 소비하는 태도를 경계한다.

② X: '겨 묻은 개가 똥 묻은 개를 나무란다'는 자신에게도 결점이 있으면서 자기보다 결점이 큰 사람을 흉보는 태도를 비꼬는 말이다. 핵심은 **자신에게도 허물이 있는데 남의 허물을 나무라는 태도**이다. ㉠의 문제는 남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소비를 무리하게 따라 하는 것이다.

③ O: '뱁새가 황새를 따라가면 다리가 찢어진다'는 자기 능력이나 형편을 고려하지 않고 남을 무리하게 따라 하다가 해를 입는다는 뜻이다. 뱁새가 황새를 따라가는 모습은 다른 사람들의 소비를 좇는 태도에, 다리가 찢어지는 것은 자신의 경제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을 지는 상황에 대응한다. 따라서 **자기 형편을 넘어 남을 따라 하지 말라**는 뜻이 ㉠과 가장 가깝다.

④ X: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는 사람은 누구나 동등하며 본래부터 높고 낮은 구별이 없다는 뜻이다. 핵심은 **사람 사이의 평등**이다. ㉠은 사람의 지위나 가치가 아니라 자신의 경제력에 맞게 소비해야 한다는 점을 말한다.

NoteBase

문 5. 윗글의 중심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책은 많은데 읽은 것은 적다. 이전에 배운 것은 몸에 익숙하지가 않고, 새로 배운 것은 아직 낯설다. 책장을 펼치기만 하면 게으른 마음이 생겨난다. 책이 많으면 많을수록 배움은 점점 더 거칠어져서 마침내는 새것과 옛것이 모두 없어지기에 이른다. 이것은 처음 공부를 시작하는 젊은이들의 일반적인 문제점이다.

한 글자마다 한 글자의 뜻을 찾아보고, 한 구절마다 한 구절의 의미를 따져보며, 한 단락을 이같이 하고, 한 권을 이처럼 해야 한다. 굳이 많이 하려고 욕심을 부리거나, 너무 적다고 해서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다. 다만 꼼꼼하게 하기에 힘을 쏟아서 자기 것으로 만든 뒤에는 책 한 권을 베껴 쓰면 내 것이 되고, 책 두 권을 베껴 써도 내 것이 된다. 이런 방식으로 해 나가면 열 권 백 권이 아니라 천 권 만 권을 읽어도 모두 내 것 아님이 없고, 책과 내가 하나가 된다.

그렇지 않고 그저 읽기만 하면 회계산에 있는 등나무를 다 캐어 종이로 만들고, 중산 땅의 토끼를 다 잡아 그 털로 붓을 만들어서, 아침에 책 열 권을 베끼고, 저녁에 책 열 권을 베껴 써서 온 세상의 책을 한 권도 남기지 않고 베낀다고 해도 책은 책이요, 나는 나일 뿐이어서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특별히 경계하도록 해라.

① 다독(多讀)의 필요성
② 거친 배움의 위험성
③ 정독(精讀)의 중요성
④ 필사(筆寫)의 가치와 기능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글쓴이는 글자와 구절의 뜻을 꼼꼼히 따져 **읽은 내용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정독**을 강조한다.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책을 읽고 베껴 써도 배움에 보탬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글쓴이는 '굳이 많이 하려고 욕심을 부리거나, 너무 적다고 해서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다'고 말한다. 천 권 만 권을 읽는다는 내용도 꼼꼼히 이해하여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중심 내용은 읽는 양을 늘리는 다독의 필요성이 아니라 **읽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는 정독의 중요성**이다.

② X: 첫째 문단에서 배움이 거칠어지면 새로 배운 것과 이전에 배운 것을 모두 잃게 된다는 문제를 지적한 것은 맞다. 그러나 이는 **정독의 필요성을 제시하기 위한 문제 상황**이다. 글 전체의 중심 내용은 거친 배움의 위험성에만 머무르지 않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글자와 구절의 뜻을 꼼꼼히 따져 읽어야 한다는 데 있다.

③ O: 정독은 글의 뜻을 자세히 살피며 꼼꼼하게 읽는 것이다. 둘째 문단의 '한 글자마다 한 글자의 뜻을 찾아보고, 한 구절마다 한 구절의 의미를 따져보며'라는 말은 구체적인 정독 방법을 보여 준다. 셋째 문단에서는 내용을 자기 것으로 만들지 못한 채 읽고 베끼는 일이 무익하다고 경계한다. 이처럼 문제 상황과 해결 방법, 경계의 말이 모두 **꼼꼼히 읽어 내용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진다.

④ X: 책을 베껴 쓰는 필사가 언급되지만, 글쓴이는 꼼꼼하게 공부하여 **내용을 자기 것으로 만든 뒤**에 베껴 쓰는 경우에 의미를 부여한다. 반대로 내용을 이해하지 않은 채 온 세상의 책을 베껴도 보탬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한다. 필사는 정독의 중요성을 드러내는 데 사용된 사례이므로, 필사의 가치와 기능 자체를 글의 중심 내용으로 삼기는 어렵다.

NoteBase

문 6. 윗글에서 ㉠의 맥락적 의미를 설명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책은 많은데 읽은 것은 적다. 이전에 배운 것은 몸에 익숙하지가 않고, 새로 배운 것은 아직 낯설다. 책장을 펼치기만 하면 게으른 마음이 생겨난다. 책이 많으면 많을수록 배움은 점점 더 거칠어져서 마침내는 새것과 옛것이 모두 없어지기에 이른다. 이것은 처음 공부를 시작하는 젊은이들의 일반적인 문제점이다.

한 글자마다 한 글자의 뜻을 찾아보고, 한 구절마다 한 구절의 의미를 따져보며, 한 단락을 이같이 하고, 한 권을 이처럼 해야 한다. 굳이 많이 하려고 욕심을 부리거나, 너무 적다고 해서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다. 다만 꼼꼼하게 하기에 힘을 쏟아서 자기 것으로 만든 뒤에는 책 한 권을 베껴 쓰면 내 것이 되고, 책 두 권을 베껴 써도 내 것이 된다. 이런 방식으로 해 나가면 열 권 백 권이 아니라 천 권 만 권을 읽어도 모두 내 것 아님이 없고 책과 내가 하나가 된다.

그렇지 않고 그저 읽기만 하면 회계산에 있는 등나무를 다 캐어 종이로 만들고, 중산 땅의 토끼를 다 잡아 그 털로 붓을 만들어서, 아침에 책 열 권을 베끼고, 저녁에 책 열 권을 베껴 써서 온 세상의 책을 한 권도 남기지 않고 베낀다고 해도 책은 책이요, 나는 나일 뿐이어서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특별히 경계하도록 해라.

① 주변에 책이 많지만 게을러 많이 읽지 못하였다.
② 책을 많이 읽었지만 정작 내 것으로 만든 책은 적다.
③ 많은 책을 소장하고 있기에 책을 소중히 생각하지 못한다.
④ 책이나 글을 백 번 읽으면 그 뜻이 저절로 이해된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의 '읽은 것'은 단순히 눈으로 읽은 책이 아니라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자기 것으로 만든 책**을 뜻한다. 글쓴이는 많이 읽고 베끼더라도 뜻을 꼼꼼히 따지지 않으면 배움에 보탬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첫 문단에 '게으른 마음'이 나타나지만, ㉠을 게을러서 실제로 읽은 책의 수가 적다는 뜻으로만 해석하면 글 전체의 맥락을 놓친다. 뒤에서는 온 세상의 책을 베끼더라도 내용을 이해하지 않으면 소용없다고 하므로, ㉠은 **읽은 분량보다 배운 내용을 자기 것으로 만들었는지**에 초점을 둔 표현이다.

② O: 글쓴이는 한 글자와 한 구절의 뜻을 따져 꼼꼼하게 공부해야 책의 내용을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다고 설명한다. 반대로 그저 읽고 베끼기만 하면 '책은 책이요, 나는 나일 뿐'이라고 한다. 따라서 ㉠은 책을 많이 접하고 읽었어도 **깊이 이해하여 자기 것으로 만든 책은 적다**는 의미이다.

③ X: 책이 많을수록 배움이 거칠어진다는 말은 나오지만, 책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는 태도는 제시되지 않는다. 문제 삼는 것은 책을 아끼는 마음의 부족이 아니라 **많은 양에 치우쳐 내용을 충분히 익히지 못하는 공부 방식**이다.

④ X: 글쓴이는 책을 많이 읽거나 베끼는 행위만으로는 배움에 보탬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뜻이 저절로 이해된다는 설명과 달리, **글자와 구절의 의미를 꼼꼼히 따져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NoteBase

문 7. <보기>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문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 관형사절을 안은 문장일 것
· 필수 성분을 두 개 요구하는 동사가 쓰일 것

① 나는 어제 산 책을 벌써 다 읽었다.
② 그의 성격은 자기 동생과 비슷하다.
③ 나는 항상 아침 일찍 운동을 나간다.
④ 그는 바쁜 생활 때문에 많이 늙었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어제 산'은 '책'을 꾸미는 **관형사절**이다. '사다'와 '읽다'는 각각 **주어와 목적어를 필수 성분으로 요구하는 두 자리 동사**이므로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관형사절은 문장 안에서 명사를 꾸미는 절이며, 서술어의 자릿수는 그 서술어가 반드시 요구하는 문장 성분의 수이다. 문장에 실제로 나타난 성분만 세는 것이 아니라 생략된 필수 성분도 고려하고, 선택적으로 덧붙인 수식어는 제외한다.

① O: '어제 산'은 서술어 '사다'의 관형사형 '산'을 중심으로 하여 명사 '책'을 꾸미는 관형사절이다. 이를 풀면 '내가 어제 책을 샀다'가 되며, 안긴절에서는 주어가 생략되고 꾸밈을 받는 '책'에 해당하는 목적어도 나타나지 않는다. '사다'는 '누가 무엇을 사다', 전체 문장의 서술어 '읽다'는 '누가 무엇을 읽다'의 구조를 이루어 각각 **주어와 목적어를 요구하는 두 자리 동사**이다. 따라서 관형사절을 안고 있으면서 두 자리 동사도 쓰였다.

② X: '그의'와 '자기'는 뒤의 명사를 꾸미지만, 그 안에 서술어가 없으므로 **관형사절이 아니다**. 또한 '비슷하다'는 '그의 성격은 자기 동생과 비슷하다'에서 주어와 비교 대상을 나타내는 필수 부사어를 요구하지만, 품사는 동사가 아니라 형용사이다. 따라서 필수 성분이 두 개라는 사실만으로 '두 자리 동사'라는 조건을 충족하지는 않는다.

③ X: '항상'과 '일찍'은 부사이고, '아침 일찍'은 운동을 나가는 때를 나타내는 부사어이다. 명사를 꾸미는 절이 없으므로 **관형사절을 안은 문장이라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관형사절은 단순히 때를 나타내는 표현이 아니라, 서술어를 갖추고 명사를 꾸미는 절이어야 한다.

④ X: '바쁜'은 '생활'을 꾸미는 관형사절로, '생활이 바쁘다'에서 꾸밈을 받는 명사에 해당하는 주어가 생략된 형태이다. 그러나 '바쁘다'는 형용사이고, 전체 문장의 동사 '늙다'는 '누가 늙다'처럼 **주어 하나를 필수 성분으로 요구하는 한 자리 동사**이다. '바쁜 생활 때문에'는 늙은 원인을, '많이'는 정도를 덧붙이는 부사어이므로 필수 성분의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관형사절 조건은 충족하지만 두 자리 동사 조건은 충족하지 못한다.

NoteBase

문 8. <보기>의 내용을 분석한 것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 사회자: 우리나라의 교통 체증 문제는 매우 심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자 여러 분야의 권위자를 모셨습니다. 각자 의견을 말해 주십시오.
㉡ 김 국장: 교통 체증은 자동차가 너무 많아서 발생합니다. 승용차 십부제와 같은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 윤 사장: 돈이 많은 회사는 번호판이 다른 차를 하나 더 구입하면 되겠지만 영세한 사업가들이 하루 동안 차량 운행을 못한다면 매우 큰 손실이 발생합니다.
㉣ 사회자: 두 가지 의견을 조금 조정하면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 승용차 십부제 운행에서 상업용은 제외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① ㉠에서 사회자는 교통 체증 해결 방안이라는 토의 과제를 설명한다.
② ㉡에서 김 국장은 승용차 십부제를 실시하자는 주장을 한다.
③ ㉢에서 윤 사장은 상대의 의견에 반대하고 다른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④ ㉣에서 사회자는 현안에 대한 조정안을 제안한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윤 사장은 승용차 십부제가 영세한 사업가에게 큰 손실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하며 반대하지만, **다른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는 않는다**. 상업용 차량을 제외하자는 조정안은 뒤이어 사회자가 제시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에서 사회자는 교통 체증 문제가 심각하다고 밝히고, 그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참석자들에게 의견을 요청한다. 이를 통해 **교통 체증의 해결 방안 마련**이라는 토의 과제를 제시한다.

② O: ㉡에서 김 국장은 자동차가 너무 많다는 점을 교통 체증의 원인으로 지적하고, 자동차 운행을 줄일 방법으로 **승용차 십부제**를 제안한다.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라는 완곡한 표현으로 자신의 해결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③ X: ㉢에서 윤 사장은 자금이 넉넉한 회사는 차를 추가로 구입할 수 있지만, 영세한 사업가는 하루 동안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면 큰 손실을 입는다고 말한다. 이는 승용차 십부제의 문제점을 들어 반대하는 발언이다. 그러나 **별도의 해결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상대의 의견에 반대하고 다른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는 설명은 '상대의 의견이 초래할 문제점을 지적하며 반대한다'로 고쳐야 한다.

④ O: ㉣에서 사회자는 김 국장이 제안한 승용차 십부제를 유지하되, 윤 사장이 제기한 영세한 사업가의 손실 문제를 고려하여 **상업용 차량을 제외**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기존 제안과 그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절충한 조정안이다.

NoteBase

문 9. 밑줄 친 단어 중 고유어로만 이루어진 것은?

① 그는 심지어 가족을 알아보지 못할 때도 있었다.
② 예전에는 상처에 된장을 붙여 치료하기도 했다.
③ 창문을 여니 시소와 그네가 있는 놀이터가 눈에 들어왔다.
④ 박 선생은, 지나치게 모나고 고지식한 면이 없지는 않았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고지식한'은 **고유어 '고지식하다'의 활용형**이다. 글자에 '지식'이 들어 있지만, 한자어 '지식(知識)'이 결합한 말은 아니다.

선지별 해설

고유어는 본디부터 우리말에 있던 말이나 그것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말이다. 이 문항에서는 밑줄 친 단어에 한자어나 외래어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구별한다.

① X: '심지어'는 **한자어 '甚至於'**에서 온 말이다. '더욱 심하다 못해 나중에는'이라는 뜻의 부사로, 고유어가 아니다.

② X: '된장'은 고유어 '된'과 한자어 '장(醬)'이 결합한 **혼종어**이다. 고유어 요소가 포함되어 있지만 고유어로만 이루어진 말은 아니다.

③ X: '시소'는 **영어 'seesaw'에서 들어온 외래어**이다. 일상에서 익숙하게 쓰는 말이라도 외국어에서 들어온 말이므로 고유어와 구별한다.

④ O: '고지식한'은 성질이 외곬으로 곧아 융통성이 없다는 뜻의 **고유어 '고지식하다'**가 활용한 형태이다. 이 말의 '지식'은 한자어 '지식(知識)'이 아니므로 고유어로만 이루어진 말에 해당한다.

NoteBase

문 10. 외래어 표기가 옳은 것은?

① chipmunk[t⊠ipm⊠⊠k]: 침멍크

② kidnap[kidnæp]: 키드내프

③ topknot[t⊠pn⊠t]: 톱놋

④ battalion[b⊠tælj⊠n]: 바탈리언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topknot'은 'top'과 'knot'이 결합한 복합어이다. 따로 쓸 수 있는 말이 결합한 복합어는 **각 말이 단독으로 쓰일 때의 표기**를 유지하므로 '톱'과 '놋'을 합쳐 '톱놋'으로 적는다.

선지별 해설

① X: '침멍크'는 **'치프멍크'**로 고친다. 영어의 무성 파열음 [p]가 비음 [m] 앞에 오면 '으'를 붙여 '프'로 적는다. 따라서 [pm]을 'ㅁ'으로 바꾸어 적지 않는다. 끝의 [k]도 모음이 아니라 [⊠] 뒤에 있으므로 '크'로 적는다.

② X: '키드내프'는 **'키드냅'**으로 고친다. 자음 [n] 앞의 유성 파열음 [d]는 '으'를 붙여 '드'로 적지만, 짧은 모음 [æ] 다음의 어말 무성 파열음 [p]는 받침 'ㅂ'으로 적는다. 따라서 마지막 부분은 '내프'가 아니라 '냅'이다.

③ O: 'topknot'은 'top'과 'knot'이 결합한 말이다. 따로 설 수 있는 말의 합성으로 이루어진 복합어는 **구성 요소가 단독으로 쓰일 때의 표기**대로 적는다. 'top'은 '톱', 'knot'은 '놋'이므로 '톱놋'으로 적는다. [p]가 [n] 앞에 있다는 이유로 '토프놋'으로 적지 않는다.

④ X: '바탈리언'은 **'버탤리언'**으로 고친다. 제시된 발음에서 [⊠]는 '어', [æ]는 '애'로 옮기므로 첫 부분은 '바타'가 아니라 '버태'에 대응한다. 뒤의 유음과 반모음 표기까지 반영한 전체 표기는 '버탤리언'이다.

NoteBase

문 11. <보기>의 밑줄 친 부분을 의미하는 한자성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장날이 되면 아버지를 따라 장터에 가서 맛난 것을 먹을 수 있었다. 형제에게 그것은 유일한 나들이이자 제대로 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 그리하여 형과 아우는 장날이 언제인지를 확인하고는 그날이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렸다.

① 鶴首苦待
② 苦盡甘來
③ 甘☒苦吐
④ 他山之石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손꼽아 기다렸다'는 장날이 오기를 **몹시 기다렸음**을 뜻한다. 이는 학처럼 목을 길게 빼고 간절히 기다린다는 '학수고대(鶴首苦待)'의 의미와 맞는다.

공통 해설

학수고대(鶴首苦待)는 학처럼 목을 길게 빼고 기다린다는 뜻으로, **어떤 일이나 대상을 몹시 기다림**을 이른다. '학수(鶴首)'는 학의 목을 뜻하며, 목을 길게 빼는 모습으로 기다리는 마음의 간절함을 나타낸다.

형제에게 장날은 유일한 나들이이자 제대로 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 그래서 장날이 언제인지 확인하고 그날이 오기만을 기다렸다. 밑줄은 이처럼 **기대하는 날이 빨리 오기를 바라는 마음**을 나타내므로, 학수고대의 의미에 해당한다.

NoteBase

문 12. <보기>를 읽고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기>
그렇다면 종 간의 다툼은 어떠할까? 다른 종의 구성원은 같은 종의 구성원에 비하면 그렇게까지 직접적인 경쟁 상대가 아니다. 이 때문에 자원을 놓고 다른 종 간에 다툼이 생기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 기대할 수 있으며, 이는 실제로도 그러하다. …(중략)… 그런데 다른 종 개체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도 있다. 가령 사자는 영양을 잡아먹고 싶어 하나 영양은 전혀 생각이 다르다. 보통 이것을 자원에 대한 경쟁이라고 보지 않는 경향이 있으나,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렇게 보지 않을 이유가 없다. 이때의 자원은 고기다. 사자의 유전자는 자기의 생존 기계의 먹이로서 그 고기를 '원한다'. 영양의 유전자는 자기의 생존 기계를 위해 일하는 근육이나 기관으로서 그 고기를 필요로 한다.

① 일반적으로 각각 다른 종의 구성원들 간의 경쟁은 같은 종의 구성원들 간의 경쟁보다 자주 발생하지 않는다.

② 다른 종의 구성원들 간에 경쟁이 일어날 때에는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뿐이다.

③ 사자가 필요로 하는 고기와 영양이 필요로 하는 고기는 그 용도가 다르다.

④ 먹고 먹히는 이해관계가 있는 대상들이 생존을 두고 벌이는 경쟁도 근본적으로는 자원을 두고 벌이는 경쟁에 해당한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②의 '경우뿐이다'는 지문의 내용을 지나치게 한정한 표현이다. 지문은 종 간 경쟁에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을 뿐, 모든 종 간 경쟁이 반드시 그러하다고 하지는 않았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지문은 다른 종의 구성원이 같은 종의 구성원에 비해 직접적인 경쟁 상대가 아니며, 실제로 종 간에 자원을 둘러싼 다툼이 그리 많지 않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종 간 경쟁이 종 내 경쟁보다 덜 빈번하다**는 내용을 추론할 수 있다.

② X: 지문은 종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면서 사자와 영양의 사례를 제시한다. 이는 종 간 경쟁의 한 양상을 설명한 것이므로, 첨예한 이해관계 대립을 **종 간 경쟁이 일어나는 필수 조건으로 한정할 수 없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뿐이다'는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도 있다'로 고쳐야 한다.

③ O: 사자에게 영양의 고기는 먹이이지만, 영양에게 그 고기는 자신의 몸을 이루어 생존을 돕는 근육이나 기관이다. 경쟁의 대상인 고기는 같아도 사자에게는 **먹이**, 영양에게는 **자신의 신체 조직**이라는 점에서 용도가 다르다.

④ O: 지문은 사자와 영양의 관계를 자원 경쟁으로 보지 않는 통상적인 시각을 소개한 뒤, 논리적으로는 자원 경쟁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한다. 사자는 고기를 먹으려 하고 영양은 그 고기를 자신의 몸으로 유지하려 하므로, 먹고 먹히는 생존의 다툼도 **고기라는 자원을 둘러싼 경쟁**에 해당한다.

NoteBase

문 13. <보기>의 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기>
매운 계절의 챗죽에 갈겨
마침내 북방으로 휩쓸려오다

하늘도 그만 지쳐 끝난 고원
서리빨 칼날진 그우에서다

어데다 무릎을 꾸러야하나?
한발 재겨디딜 곳조차 없다

이러매 눈 감아 생각해볼밖에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갠가보다.

- 이육사, 「절정」 -

① 화자는 수평적으로 펼쳐진 대지의 끝에서 '북방'이라는 현실의 극한점을 경험하고 있다.
② 화자는 무릎을 꿇어서라도 고통의 극한에서 살아남고자 하는 실존적 열망을 드러낸다.
③ 화자는 단단하고 차가운 이미지와 이와 대비되는 이미지가 역설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상황을 떠올리고 있다.
④ 화자는 수직적 세계의 정점인 고원에 이르러 절망적인 상황에 대한 비관적인 태도를 지속적으로 드러낸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④의 '비관적인 태도를 지속적으로 드러낸다'는 설명은 마지막 연의 변화를 놓친 것이다. 화자는 겨울을 '강철로 된 무지개'로 새롭게 인식하며, 절망에 머무르지 않고 **극한 현실을 정신적으로 넘어서려는 태도**를 드러낸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1연에서 화자는 가혹한 계절에 내몰려 '마침내 북방으로 휩쓸려오다'라고 말한다. 여기서 '북방'은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는 **수평적 공간의 극한**을 나타내며, 화자가 처한 현실의 가혹함을 구체적인 공간으로 드러낸다.

② O: 3연에서 무릎을 꿇을 곳을 묻는 것은 고통 속에서 **구원을 청하며 살아남으려는 절박함**을 드러낸다. 그러나 발을 옮겨 디딜 곳조차 없다는 말이 이어지므로, 그 바람을 실현하기도 어려울 만큼 생존의 조건이 위태로운 상황임을 알 수 있다.

③ O: 마지막 연의 '강철로 된 무지개'에는 단단하고 차가운 '강철'과 밝고 아름다운 '무지개'의 이미지가 결합되어 있다. 서로 어울리기 어려운 속성을 하나로 묶은 **역설적 표현**으로, 화자가 혹독한 겨울을 절망의 대상으로만 보던 데서 벗어나 새롭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④ X: '하늘도 그만 지쳐 끝난 고원'은 수직적 공간의 극한을 나타내므로 고원에 대한 설명은 타당하다. 그러나 마지막 연에서 화자는 눈을 감고 생각하며 겨울을 '강철로 된 무지개'로 받아들인다. 따라서 비관적인 태도가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인식의 전환을 통해 극한 상황을 정신적으로 넘어서려는 태도**로 나아간다고 보아야 한다.

NoteBase

문 14. <보기 1>을 고려하여 <보기 2>의 밑줄 친 부분의 표준 발음을 해석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1>
㉠ 받침소리로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ㅇ'의 7개 자음만 발음한다.
㉡ 받침 'ㄲ, ㅋ', 'ㅅ, ㅆ, ㅈ, ㅊ, ㅌ', 'ㅍ'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대표음 [ㄱ, ㄷ, ㅂ]으로 발음한다.
㉢ 홑받침이나 쌍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 접미사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제 음가대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 받침 뒤에 모음 'ㅏ, ㅓ, ㅗ, ㅜ, ㅟ'들로 시작되는 실질 형태소가 연결되는 경우에는, 대표음으로 바꾸어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보기 2>
아들 내외가 <u>부엌</u>에서 식사 준비를 하고 있다.

① ㉠에 따라 [부어게서]라고 발음한다.
② ㉡에 따라 [부어게서]라고 발음한다.
③ ㉢에 따라 [부어케서]라고 발음한다.
④ ㉣에 따라 [부어케서]라고 발음한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에서'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이므로, '부엌'의 받침 'ㅋ'을 대표음 'ㄱ'으로 바꾸지 않고 **제 음가대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긴다. 이에 따라 '부엌에서'는 [부어케서]로 발음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은 받침소리로 발음되는 자음이 7개라는 원칙이다. 그러나 '부엌에서'에서는 'ㅋ'이 받침소리로 남지 않고 **뒤 음절의 첫소리로 옮겨** 발음된다. 따라서 'ㅋ'을 'ㄱ'으로 바꾼 [부어게서]가 아니라, ㉢에 따라 [부어케서]로 발음한다.

② X: ㉡에 따라 'ㅋ'을 대표음 [ㄱ]으로 발음하는 환경은 **어말 또는 자음 앞**이다. '부엌에서'는 '부엌'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에서'가 결합한 경우이므로 이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을 적용하여 'ㅋ'을 그대로 옮긴 [부어케서]로 발음한다.

③ O: '부엌'의 'ㅋ'은 홑받침이고, '에서'는 모음 'ㅔ'로 시작하는 조사이다. 따라서 ㉢의 조건에 해당하므로, 받침 'ㅋ'을 **제 음가대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엌'의 'ㅋ'이 '에'의 첫소리가 되어 '케'로 발음되므로, '부엌에서'의 표준 발음은 [부어케서]이다.

④ X: [부어케서]라는 발음 자체는 맞지만, 이를 ㉣에 따른 것으로 설명한 것이 잘못이다. ㉣은 받침 뒤에 일정한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가 연결될 때 적용된다. 여기서 '에서'는 **실질 형태소가 아니라 조사**이므로, 대표음으로 바꾸는 ㉣이 아니라 제 음가대로 옮기는 ㉢을 적용해야 한다.

NoteBase

문 15. <보기>의 문학사의 내용을 시간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보기>
ㄱ. 「용비어천가」, 『월인천강지곡』과 같은 작품들이 나타나 새로운 시가문학의 등장을 알렸다.
ㄴ. 「한림별곡」과 같은 경기체가가 등장하였으며, 주된 문학 담당층은 당시의 귀족 계급들이었다.
ㄷ. 「춘향전」, 「심청전」, 「별주부전」과 같은 국문소설들이 활발하게 창작되고 폭넓게 향유되었다.
ㄹ. 「제망매가」, 「도솔가」, 「헌화가」와 같은 향가가 활발히 창작되었다.
ㅁ. 「혈의 루」, 「은세계」, 「자유종」과 같은 국문소설들이 창작되어 새로운 소설의 시대를 열었다.

① ㄴ - ㄹ - ㄱ - ㅁ - ㄷ
② ㄴ - ㄹ - ㄷ - ㄱ - ㅁ
③ ㄹ - ㄱ - ㄴ - ㄷ - ㅁ
④ ㄹ - ㄴ - ㄱ - ㄷ - ㅁ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한림별곡」은 **고려 시대**에 등장한 경기체가로, 「용비어천가」·『월인천강지곡』이 창작된 **조선 전기보다 앞선다**.

NoteBase

올바른 순서

ㄹ → ㄴ → ㄱ → ㄷ → ㅁ

ㄹ. 「제망매가」·「도솔가」·「헌화가」는 **통일 신라 시대**의 향가이다. 고려 시대의 경기체가보다 앞선 시기의 문학이므로 가장 먼저 놓는다.

ㄴ. 「한림별곡」은 **고려 후기**에 등장한 경기체가이다. 당시 문인층의 생활과 자부심을 드러낸 작품으로, 신라 향가 이후이자 조선 전기의 악장 이전에 해당한다.

ㄱ. 「용비어천가」와 『월인천강지곡』은 훈민정음 창제 이후에 지어진 **조선 전기의 악장**이다. 「용비어천가」는 조선 왕조 선조들의 행적을, 『월인천강지곡』은 석가모니의 공덕을 노래한다. 고려의 경기체가 등장보다 뒤에 놓는다.

ㄷ. 「춘향전」·「심청전」·「별주부전」과 같은 국문 고전소설이 활발하게 창작되고 널리 향유된 시기는 **조선 후기**이다. 조선 전기의 악장 창작 이후에 해당한다.

ㅁ. 「혈의 루」·「은세계」·「자유종」은 **개화기의 신소설**이다. 20세기 초에 발표되어 새로운 시대의 의식과 사회상을 담았으므로, 조선 후기의 국문 고전소설이 융성한 시기보다 뒤에 놓는다.

NoteBase

문 16. 밑줄 친 부분이 어법에 맞게 쓰인 문장은?

① 그는 한때 나는 새도 떨어뜨릴 만큼 권력이 강했다.

② 하니바람은 맑은 날 서쪽에서 불어온다.

③ 이것을 백분률로 나타내 보아라.

④ 벼르고 별르다가 오늘은 기어코 야단을 쳤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나는'은 '날다'의 어간 '날-'에 관형사형 어미 '-는'이 붙으면서 **ㄹ이 탈락한 형태**이다. 따라서 새가 날고 있음을 나타낼 때 '나는 새'로 쓴다.

선지별 해설

① O: '나는'은 동사 '날다'가 뒤의 명사 '새'를 꾸미도록 활용한 말이다. 어간 '날-'에 '-는'이 붙으면 **ㄴ 앞에서 받침 ㄹ이 탈락**하여 '나는'이 된다. '날으는'으로 쓰지 않는다.

② X: '하니바람'은 **'하늬바람'**으로 고쳐야 한다. 자음을 첫소리로 가진 음절의 '-늬'는 [ㅣ]로 발음하더라도 표기에서는 '-늬'를 유지한다. 따라서 [하니바람]으로 발음하지만 '하늬바람'으로 적는다.

③ X: '백분률'은 **'백분율'**로 고쳐야 한다. 한자음 '률'은 모음이나 ㄴ 받침 뒤에서는 '율'로 적는다. '백분'의 마지막 음절 '분'에 ㄴ 받침이 있으므로 '백분율'로 쓴다.

④ X: '별르다가'는 **'벼르다가'**로 고쳐야 한다. 기본형은 '벼르다'이며, 어간 '벼르-'에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다가'가 붙을 때는 어간을 그대로 유지한다. '벼르다'는 '-어'와 결합하면 르 불규칙 활용으로 '별러'가 되지만, '-다가' 앞에서는 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NoteBase

문 17. <보기>는 소설가 이해조가 「화의 혈(花의 血)」이라는 소설을 연재하면서 썼던 후기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소설이라 하는 것은 매양 빙공착영(憑空捉影)으로 인정에 맞도록 편집하여 풍속을 교정하고 사회를 경성하는 것이 제일 목적인 바 그와 방불한 사람과 방불한 사실이 있고 보면 애독하시는 모든 부인, 신사의 진진한 재미가 한층 더 생길 것이오. 그 사람이 회개하고 그 사실을 경계하는 좋은 영향도 없지 아니할지라. 고로 본 기자는 이 소설을 기록하며 스스로 그 재미와 그 영향이 있음을 바라고 또 바라노라.

① 이해조는 소설이 허구적인 이야기라는 사실을 잘 이해하고 있다.

② 이해조는 소설 속 이야기가 현실과 비슷하면 비슷할수록 독자의 재미가 한층 더 생긴다고 본다.

③ 이해조는 소설 속 내용을 통해 풍속을 교정하고 사회를 일깨우는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본다.

④ 이해조는 소설이 담고 있는 메시지보다, 있을 법한 사실을 다뤄 독자의 재미를 일으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이해조는 소설의 '제일 목적'을 **풍속 교정과 사회의 일깨움**에 두고 있다. 독자의 재미도 기대하지만, 이를 소설이 전하는 교훈보다 더 중요하게 보지는 않는다.

선지별 해설

① O: '빙공착영'은 허공에 기대어 그림자를 잡는다는 뜻으로, 여기서는 **상상으로 이야기를 꾸며 내는 것**을 가리킨다. 소설을 이렇게 만든 이야기로 설명하므로, 소설의 허구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O: '방불한'은 비슷하다는 뜻이다. 소설 속 인물이나 사건과 비슷한 것이 현실에도 있으면 '재미가 한층 더 생길 것'이라고 했으므로, **현실과의 유사성이 독자의 흥미를 높인다**고 본다.

③ O: '풍속을 교정하고 사회를 경성'한다는 것은 잘못된 풍속을 바로잡고 사회를 일깨운다는 뜻이다. 또한 독자가 회개하고 잘못된 일을 경계하는 영향도 기대하므로, 소설이 **독자와 사회에 좋은 변화를 줄 수 있다**고 본다.

④ X: 이해조는 '풍속을 교정하고 사회를 경성하는 것이 제일 목적'이라고 명시했다. 따라서 '재미가 교훈적 메시지보다 더 중요하다'는 설명은 목적의 우선순위를 뒤바꾼 것이다. 소설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풍속 교정과 사회의 일깨움**이며, 재미도 함께 추구한다고 고쳐야 한다.

NoteBase

문 18. <보기>에서 설명하는 작품의 주제를 가장 잘 보여주는 한자성어는?

<보기>
무대를 황해도 황주군으로 하고 인명을 심학규라고 하고 몸을 팔아서라도 눈먼 아비의 효양을 애쓰는 것은 향토적 색채를 가장 농후케 한다. 작자는 심청을 이상화시키고자 하여 다른 모든 설화에서 보여 주지 못하는 효성을 그렸다. 심청이 인당수로 떠나는 광경과 심학규의 먼 눈이 다시 열리는 광경은 기쁨과 슬픔 사이의 좋은 대조이다. 심청으로 하여금 금전과 은의의 충돌에서 죽게 한 것은 그 정경이 사람의 눈물을 내지 않고는 가만 있을 수 없게 하고, 죽음에서 삶을 얻고 비천함에서 귀함을 얻고 영별(永別)에서 해후를 얻은 희극은 인생의 최고의 희열일 것이다.

① 金科玉條
② 反哺之孝
③ 錦上添花
④ 南柯一夢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심청이 몸을 팔면서까지 눈먼 아버지를 봉양하려는 행동은 **부모의 은혜에 보답하는 효성**을 보여 준다.
'반포지효(反哺之孝)'는 이러한 효성을 뜻한다.

공통 해설

보기에서 설명하는 작품은 '심청전'이다. 심청이 몸을 팔아서라도 아버지 심학규를 봉양하려 하고, 작자가 심청의 효성을 이상화하여 그렸다는 설명에서 중심 주제가 **부모를 향한 지극한 효성**임을 알 수 있다. 아버지와의 재회나 신분의 상승은 사건의 결말이며, 주제를 파악하는 핵심은 심청의 희생을 이끄는 효심이다.

'반포지효(反哺之孝)'는 자란 까마귀가 어미에게 먹이를 물어다 준다는 데서 나온 말로, **부모에게 받은 은혜를 갚는 효성**을 뜻한다. 부모에게서 보살핌을 받은 자식이 다시 부모를 봉양한다는 의미이므로, 눈먼 아버지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심청의 행동과 연결된다.

NoteBase

문 19. <보기>에서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그림문자는 시각 체계에 의해 쉽게 인지된다. 구술언어에서 사용되는 대상의 이름과 짝 짓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소설가 빅토르 위고는 모든 문자들이 이집트의 신성문자에서 비롯되었는데, 이 신성문자는 강이나 뱀, 백합 꽃대와 같이 세상에 실재하는 이미지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런데 수메르어의 쐐기문자는 고안되자마자 신기하게도 그리고 상당히 놀랍게도 세련된 형태로 변해갔다. 그림문자적 성격이 사라진 상징은 보다 표의적, 추상적으로 바뀌었다. 표의적 문자체계는 단어가 음성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구술언어의 개념을 직접 전달한다. 시간이 흐르자 수메르어의 글자들 가운데 다수가 구술언어에 사용되던 음절의 일부를 표상하기 시작했다. 이 체계는 뇌에 훨씬 많은 작용을 하도록 요구한다.

① 소설가 빅토르 위고는 이집트의 신성문자는 실재하는 이미지에 뿌리를 둔 그림문자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
② 수메르어의 쐐기문자는 그림문자가 전달하기 어려운 추상적 개념까지도 직접 전달할 수 있도록 변천했다.
③ 그림문자는 문자의 시각적 이미지로 대상의 이름을 연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④ 표의문자와 표음문자는 전혀 다른 기원을 통해서 발전했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수메르어의 쐐기문자는 개념을 직접 전달하는 표의적 성격을 띠다가, 글자들 가운데 다수가 음절의 일부를 나타내게 되었다. 이는 표의문자와 표음문자가 **같은 문자체계의 변화 과정에서 연결됨**을 보여 주므로, '전혀 다른 기원'이라는 추론은 적절하지 않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위고는 이집트의 신성문자가 강·뱀·백합 꽃대처럼 **실재하는 대상의 이미지에 뿌리를 둔다**고 보았다. 대상의 모습을 시각적으로 나타낸다는 점에서, 위고가 신성문자를 그림문자에 해당한다고 생각했음을 추론할 수 있다.

② O: 둘째 문단에서는 쐐기문자의 그림문자적 성격이 사라지고 상징이 표의적·추상적으로 바뀌었다고 설명한다. 또한 표의적 문자체계는 음성이 아니라 **개념을 직접 전달한다**고 했으므로, 구체적인 대상의 그림으로 전달하기 어려운 추상적 개념까지 나타내도록 변천했음을 알 수 있다.

③ O: 첫 문단에서는 그림문자를 쉽게 인지하는 이유를, 그림문자와 구술언어에서 사용하는 **대상의 이름을 짝지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따라서 문자의 시각적 이미지에서 대상을 알아보고 그 이름을 연상할 수 있다는 장점을 추론할 수 있다.

④ X: 둘째 문단에서는 쐐기문자가 표의적·추상적으로 바뀐 뒤, 그 글자들 가운데 다수가 구술언어에 사용되던 음절의 일부를 나타내기 시작했다고 설명한다. 개념을 직접 전달하던 문자에 소리를 나타내는 기능이 생긴 것이므로, 표의문자와 표음문자는 지문에서 **같은 문자체계 안에서 이어지는 변화**로 제시된다. 따라서 두 유형이 전혀 다른 기원에서 발전했다고 볼 수 없다.

NoteBase

문 20. <보기>의 '환상 공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기>
정신분석에서 환상은 현실의 편에 존재합니다. 현실에서 안 되는 게 환상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현실 속에서 출구를 찾을 수 있게 돕는 게 바로 환상입니다. 환상 공간이란 나만의 공간, 내가 좋아하는 공간, 내가 꿈꿀 수 있는 공간을 뜻합니다. 그 반대편에 빅브라더가 감시하는 감옥 같은 공간이 있을 거예요. 그냥 명령에 따라야 하는 곳, 심지어 불합리한 명령도 일상이 되는 곳, '나', '내 삶'이 사라지는 곳이 있다면, 반대편에는 나다워지는 곳, 내 잠재력이 발휘되는 공간, 내가 힘을 받는 장소가 있겠죠. 영화 <트루먼 쇼>에서 주인공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피지에 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피지는 그가 사랑하는 여인이 있는 곳인데, 피지가 바로 환상 공간이에요. 그가 행복해지는 곳, 그를 기쁘게 만드는 장소죠. 이 환상 공간이 있기에 그가 모든 것을 견디며 앞으로 나아갑니다. 나 자신이 될 수 있는 곳은 어디든 '환상 공간'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중략)
환상 공간에서 보호받는 내가 있다면 그 반대편, 카프카적인 어둠 속에 있는 나도 있습니다. 후자는 우리의 '그림자'입니다. 꿈은 우리가 그림자와 이야기를 나누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림자를 내 환상 공간에 초대할 수 있어야겠죠. 그 절망과 우울을 가로지르지 않는다면, 나는 내 환상 공간을 지어내고 지켜낼 수 없습니다. 밝은 모습 아래 길게 늘어져 있는 그림자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왜 그렇게 악을 쓰고 분노하고 치를 떨고 있는지,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아야 합니다. 물론 내 그림자를 만나는 장소는 '꿈'입니다.

① 환상 공간은 현실에서 출구를 찾을 수 있게 돕는다.
② 환상 공간은 나를 나답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
③ 환상 공간에 절망과 우울함을 위한 자리는 없다.
④ 환상 공간은 현실을 견디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한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절망과 우울은 배제해야 할 것이 아니라, 환상 공간으로 초대해야 할 자신의 '그림자'이다. 글쓴이는 **절망과 우울을 가로질러야** 자신의 환상 공간을 만들고 지킬 수 있다고 본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첫 문단에서 환상은 '현실 속에서 출구를 찾을 수 있게 돕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따라서 환상 공간은 현실에서 이루지 못한 일을 대신 이루는 도피처라기보다 **현실 속의 출구를 찾도록 돕는 공간**이다.

② O: 첫 문단은 환상 공간을 '나다워지는 곳', '내 잠재력이 발휘되는 공간'으로 설명하고, 나 자신이 될 수 있는 곳은 어디든 환상 공간이라고 말한다. 이는 명령에 따라야 하며 '나'와 '내 삶'이 사라지는 공간과 대비되므로, 환상 공간은 **자기다움을 되찾고 잠재력을 발휘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③ X: 둘째 문단은 어둠 속의 나를 '그림자'라고 부르며, 그 이야기를 듣고 언젠가 환상 공간에 초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또한 절망과 우울을 가로지르지 않으면 환상 공간을 만들고 지킬 수 없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절망과 우울을 위한 자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림자의 절망과 우울을 마주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④ O: 첫 문단에서 영화 <트루먼 쇼>의 주인공에게 피지는 사랑하는 여인이 있는 환상 공간이다. 글은 이 공간이 있기에 주인공이 '모든 것을 견디며 앞으로 나아갑니다'라고 설명한다. 환상 공간은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 장소를 꿈꾸게 하여 **현실을 견디고 나아갈 힘**을 준다.

NoteBase